



카드·계좌 내역으로 1인 사업자의 장부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 문제

1인 사업자는 장부 정리에 매달 열 시간 넘게 씁니다.

01

카드·계좌·현금영수증 내역이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02

세무 대리인 기장료는 월 10만 원부터라
매출이 작으면 부담입니다.

03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영수증을 처음부터
다시 찾습니다.

— 해결

거래 내역을 연결하면 장부가 저절로 쌓입니다.

작동 방식

카드사·은행·홈택스를 한 번 연결하면 거래를 계정과목으로 나누고,
신고 기간에는 신고서 초안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 제품

모아장부의 핵심 기능

01

자동 분류

거래마다 계정과목을 붙이고, 고친 것은
다음부터 기억합니다.

02

신고서 초안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홈택스 양식
그대로 만듭니다.

03

세무사 연결

막히는 거래만 골라 제휴
세무사에게 물어봅니다.

— 왜 지금

마이데이터로 금융 내역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01

2022년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으로 카드·계좌 연결이 표준이 됐습니다.

02

온라인 판매자와 프리랜서 같은 1인 사업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03

홈택스 신고서 양식이 전자 문서로 공개돼 있습니다.

— 시장

4.3조 원 TAM

국내 개인사업자 기장·신고 대행 지출

SAM 6,800억 원

간편장부 대상 1인 사업자

SOM 120억 원

온라인 판매자·프리랜서, 3년 목표

출처 국세청 통계연보 2025 기반 자체 추산

— 사업 모델

기장료의 10분의 1, 월 구독으로 받습니다.

월 9,900원

사업자 1곳 · 신고서 포함

첫 신고 기간까지 무료

세무사 연결은 건당 수수료 20%

연 결제 시 두 달 할인

— 성과

출시 7개월, 입소문으로 자랐습니다.

3,200곳

유료 사업자 (2026년 9월)

4.1%

월 해지율

61%

추천으로 가입한 비율



모아장부를 만드는 사람들

김하린

대표

세무법인에서 6년 동안 개인사업자
기장을 맡았습니다.

박도윤

CTO

핀테크 가계부 앱의 백엔드를
이끌었습니다.

이서진

디자인

금융 앱 UX를 5년 동안 설계했습니다.

— 제안

20억 원 시드

쓰는 곳

제품 개발	45%
-------	-----

마케팅	35%
-----	-----

운영	20%
----	-----

김하린

harin@moajangbu.kr

moajangbu.kr